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뿐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4월 25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 치매관리팀장 이지영 ☎440-2981 • 담당자 권옥연 ☎440-298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도시 인천, 올해 치매약국 600개소 지정한다

- 시약사회·광역치매센터와 「치매안전망구축(치매안심약국사업)」 업무협약 체결 -
 - 치매안심약국 ... 치매관련 정보제공·복약지도 및 실종 어르신 신고 등 수행 -

치매안심도시 인천이, 치매안심약국사업을 통해 치매친환적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5일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 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센터장 정성우)와 함께 ‘치매안전망구축(치매안심약국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으로, 시는 치매파트너로 약국을 선택했다.

치매안심약국 약사를 치매환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치매파트너로 양성해, 약국을 찾은 치매환자와 가족이 불편함이 없도록 치매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치매안심약국에서는 치매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복약지도를 통해 약물 오·남용 예방하며 배회 또는 실종 어르신 발견 시 신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인천시 관내 약국은 1,200여 개 소로 시는 올해 치매안심약국 600개소를 모집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에서는 치매안심약국 활동 지원을 위해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와 정보를 제공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안심약국이 성공적으로 운영돼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천광역시약사회와 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에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1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